

# “고공행진 쌀 값 잡아라”

## 농식품부,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및 대책 발표 이달 들어 평년수준 안정세...감자·무 가격 ↓

정부가 쌀 10만t을 풀고, 감자 수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는 등 밥상물가 잡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과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가장 가격이 크게 들쭉인 품목은 채소류로, 노지채소보다는 시설채소의 진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하순 애호박과 오이 등 시설채소가 고온 다습한 기후와 일조량 부족 등의 이유로 가격이 평년 대비 35.2%나 뛰는 등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시설채소는 기상여건이 나아지면 생육이 빠르게 회복되

는 특성이 있어 이달 상순 평년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쌀은 산지 가격 80kg 기준으로 4월 17만1,376원에서 지난달 17만2,264원을 거쳐 이달 17만4,096원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확기까지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정부양곡 10만t을 공매하기로 했다. 이 쌀 공매는 15일 공고 후 26일 입찰을 벌여 다음달 9일 납입 예정이다.

올봄 가격이 크게 올라 ‘금자’로 불린 감자는 지난달 말 노지 봄 감자가 출하되면서 평년 수준으로 값이 내렸다. 감자 20kg 기준 도매가격은 지난달 중

순에는 5만940원을 기록했고, 특히 지난달 하순에는 4만1,498원으로 집계돼 평년보다 46%나 비싸게 팔린 바 있다. 그러나 이달 상순에는 평년보다 5% 비싼 수준인 2만5,062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노지 봄감자 생산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어서 가격이 평년 수준에서 안정화 될 것”이라며 “지난해보다 20.2%나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특히 울해와 같은 가격 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매비축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급이 불안하면 정부가 일정 물량을 직접 수입·공급하는 수급관리 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이래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양파는 생산량이 최대 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남 병해 발생

지역에서 2만t을 추가 수매하고, 수출과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배추, 사과, 배는 생산량 증가와 소비 부진 등으로 평년보다 낮은 시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다만 4월 이상 저온과 지난달 말 내린 우박 등의 영향으로 추석 명절에는 사과·배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수급이 불안하리라 예측되면 추석 한 달 전부터 계약물량을 집중적으로 풀어 가격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채소류는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저장성이 낮고, 국내 수급이 불안하면 신속한 수입으로 대체하기도 어려워 단기간 내 가격 등락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생산 전부터 생육과 출하까지 단계별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부

## “현대차, 광주 완성차 공장 참여 환영” 건설협회 광주시회 이권수 회장 성명서 발표

대한건설협회광주시회(회장 이권수·사진)는 14일 현대자동차의 광주 완성차 공장 참여 의향서 제출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광주시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번 현대차의 참여 의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자동차 부품기업들과 관련 연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회는 “광주 완성차 공장에서 연간 10만여대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관련 부품기업 유치와 증설, 생산 차량 판매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1만 2,0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면서 “특히 빛그린산단에 3,030억원 규모로 추진중인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 결의를 기반으로 광주시와 다수기업이 합작방식으로 설립한 광주시회는 “광주시가 앞으로 현대자동차와의 차질 없는 협상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투자를 이끌어 내기를 기원한다”며 “현대자동차가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반드시 성공해 광주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친환경 자동차의 선도도시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 달라”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 광주신보, ‘무방문 기한연장’ 큰 호응

지난해 5,300여개 업체 편의 혜택

광주신보보증재단(이사장 박종광)이 재단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고객이 광주신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출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무방문 기한연장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300여개 업체가 광주신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기한을 연장했다. 올해에도 대상기업을 확대 실시해 생업에 바쁜 영세 소상공인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 및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있다.

이 서비스 대상고객은 개인기업으로서 남아있는 보증잔액이 5,000만원 이하인

연대보증인이 없는 기업이 대상이며 다만 법인기업이거나 휴·폐업,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고객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박종광 광주신보 이사장은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철저히 분석해 고객 편의의 관점에서 개선했으며 또한 앞으로 신청 서류 간소화, 찾아가는 현장보증, 고객 만족 강화 등 보증업무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 “전세계 곳곳서 요금 부담없이 통화”

국가별 맞춤형·데이터 무제한 등 요금 낮춰 여행객 공략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해외로밍 요금제를 출시하고 나섰다.

통화와 데이터는 늘렸지만, 요금은 낮춰 여행객과 해외 출장자 등 고객유치에 나서고 있다.

현지 유심(USIM)이나, 포켓형 와이파이 등을 활용하면 경제적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패턴 등을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 ◇SK텔레콤  
SK텔레콤은 지난 3일 지역 맞춤 요금제 미주패스, 유럽패스를 출시했다. 미주, 유럽패스는 미주 지역 15개국, 유럽 지역 44개국에서 30일간 이용할 수 있다. 미주패스는 데이터 3GB(3만 3,000원), 6GB(5만 3,000원), 유럽패스는 데이터 3GB(3만 9,000원), 6GB(5만 9,000원)를 제공한다.
- ◇KT  
KT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5개국에 1초당 1.98원을 적용하는 ‘로밍ON’을 출시했다. 과거 현지 및 국내로 통화할 경우 10분에 5,500~2만 4,000원의 요금을 부담했다면 로밍ON 개편을 통해 10분에 1,188원 정도로 부담하면 된다.
-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말 국내 최초 데이터 제공량과 속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중국·일본·미국 등 37개국에서 하루 1만 3,200원으로 모바일 데이터와 테더링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고객의 휴대폰 데이터를 가족·친구 등 동행자들과 함께 쓸 수 있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9월 중순부터 학교서 커피 퇴출  
식약처, 올바른 식습관형성 취지

9월 중순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과·채 주스, 가공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와 달리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팔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기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시행될 수 있게 협조를 구했다.

식약처는 “청소년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한다”면서 “통상 제품 60kg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mg을 초과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 특수경매 전문  
● 입찰부터 매매까지  
● 건축 리모델링·개발전문

# 법률경매 (주)대신경매

● 경매교육 ●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6월 개강 선착순 모집 ★

### 상가빌딩 (추천)

- 1) 북구 두암동 (3층 상가주택)  
토 45평 건 93평 / 4차선도로 접  
▶ 감정가 2억8천 → 최저가 2억8천
- 2) 남구 백운동 (3층 빌라)  
토 65평 건 145평 / 코너위치  
▶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2억5천
- 3) 화순 도곡면 (숙박시설)  
토 617평 건 856평  
객실 56개 (월5,000만 예상)  
▶ 감정가 26억 → 최저가 6억
- 4) 북구 문흥동 (빌라)  
토 57평 건 101평  
▶ 감정가 3억6천 → 최저가 2억
- 5) 서구 금호동 (4층 중1층상가)  
토 69평 건 137평 / 대단위 아파트 코너위치  
▶ 감정가 13억 → 최저가 9억1천

### 근린상가

- 1) 수완지구 (5층중 2층상가)  
토 15평 건 32평  
국민은행 사거리 도로 접  
▶ 감정가 3억1천 → 최저가 3억1천
- 2) 북구 용봉동 (12층 중 7층 상가)  
토 62평 · 건 100평  
▶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2억9천9백
- 3) 동구 남동(상가주택)  
토 30평 · 건 49평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7천
- 4) 남구 봉선동 (4층 중 1층 상가)  
토 60, 건 102평  
▶ 감정가 18억 → 최저가 12억6천
- 5) 서구 매향동 (7층중 3층상가) 자동차매장  
토 4평 건 15평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2백

### 토지 추천

- 1) 서구 매향동(348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로대로 접 (식당·몰류·투자최고)  
▶ 시세 - 18억 → 최저가 6억6천
- 2) 북구 문흥동 (토지) 378평  
▶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1억6천4백
- 3) 남구 월산동 (100평)  
▶ 감정가 1억 2천 → 최저가 7천9백
- 4) 나주시 송월동 (171평) 한국전력공사·상업지  
▶ 감정가 8억4천5백 → 4억 7천
- 5) 장성군 장성읍 (90,910평)  
▶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3억3백
- 6)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554평) 오성산업단지 인근  
▶ 감정가 1억7천8백 → 최저가 8천7백
- 7)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84평)  
▶ 감정가 20억 8천 → 10억

### 상가매매(수익형)

#### 상무지구 중심구역 (12층중 6층상가)

23평 (모든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 시세 1억3천  
매가 6천300만

- 1) 상무지구 중심구역 상가(12층중 6층)  
19평 (보5백 월33만) ▶ 매가 6천5백만
- 2) 북구 용봉동(상가빌딩) 상대1분 (코너)  
토 65평 건 164평 (4층 안압입음)  
보 1억6천 월 430만 ▶ 매가 11억2천만
- 3)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초역세권 토지)  
송탄역 1분 (코너 (건축허가완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가 9억
- 4) 평택 독곡동 전원주택 분양(투자적합)  
송탄역 전위역 5분 (고달신도시 7분 !!)  
1월지 약 200평 ▶ 매가 2억4천만(용1억2천)
- 5) 원룸 토지매매 (광산구신장동)  
코너 16(상가1개) ▶ 매가가 3억5천만

### 원룸 매매 {상가 신축}

#### 월곡시장2분(고려인마을)

신정공원 바로앞(코너)

1층 ★ 상가2칸 ★  
2층~3층 (원룸10개) 투룸(2개)  
4층 (주택)

★공원앞 전망최고★

보 9천만 월수입 600만 (용3억)

▶ 매가 9억 5천만

010-6670-9800

010-7384-7800

010-6670-9800